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6
Summer

vol.182



여름 이야기

제10회 국내입양 사진 & 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동영상 부문 대상, 사진 부문 입상의 2관왕을 차지한 주영이네는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던 긍정 에너지 가득한 가족입니다. 여전히 조금씩 달아가고 있어 늘 행복하다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4p 계속)

사진 | 이룩 사진작가·Looks Studio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2호·계간 **발행일** | 2016년 6월 15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정순규(자원개발실장),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신복지재단),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만들어갑시다
- 04 **입양, 우리 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달아가는 중
별처럼 빛나는 가족의 순간,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 수상 사진
- 08 **기획**
홀트심리상담센터, 건강한 가족에게서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다
-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형민이가 혼자 걷는 그날까지
- 14 **Love In World**
몽골에서 온 편지
- 16 **싱글맘 Jump With Baby**
사랑스러운 하진이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
- 18 **Holt Interview**
광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다
- HS애드 심의섭 수석 카피라이터
- 20 **나눔이웃 나눔기업 1**
소비자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우리는 아이사랑공간입니다!"
- 22 **나눔이웃 나눔기업 2**
배우 이민호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
- 우리 함께 약속해요 'PROMIZ(프로미즈)'
- 24 **희망 풍경 1**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
- <두시탈출 컬투쇼> 10주년 기념 콘서트
- 26 **희망 풍경 2**
아나바다 알뜰장터, '엔젤 패밀리'의 날개를 달다
- 28 **희망 풍경 3**
12개국 22명의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p>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p> <p>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p> <p>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p>	<p>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p> <p>부속기관 홀트일신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p>	<p>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p> <p>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l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p> <p>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p>
---	---	---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만들어갑시다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가, 아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홀트는 반 세기 이상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국내·외에서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2005년 입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올해로 11회째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헤이그 국제아동양양협약'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 우선된다는 내용의 협약이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 삶의 만족도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동단체연합회에서는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동의 '생명 존중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발달의 권리' 등을 포함한 9가지 권리가 담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아동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올바르게 자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홀트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인 '홀트미추홀'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정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안전한 가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홀트를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닳아가는 중

사람들은 말합니다. “준이는 아빠랑 똑같네~ 주엘이는 엄마를 닮았나? 아무도 안 닮았나...?” 때로는 속상한 게 사실이지만 부부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전적으로 같은 생김새가 아니어도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조금씩 더 닳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은, 국내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엄마와 행동대장 아빠의 걸작!

아들 둘 이상을 키우면 성격이 남자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나나 다를까, 김은진 씨는 요즘 가끔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모습에 화들짝 놀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 셋을 거느리고 사는 여자가 어디 보통이어야 될 일인가요? 없던 카리스마도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카리스마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번 '아름다운 행복'에서 대상과 입상을 거머쥔 동영상과 사진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한 후 아이들 재워놓고서야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제가 기획부터 감독, 연기 지도까지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한테 '우리 대상 한 번만 받고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웃음).”

아내의 말에 남편 김석규 씨가 '킷'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사연 인즉, 아내는 지시만 했을 뿐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 정작 힘든 일은 본인이 다 했다는 주장입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여줬을 때 “이게 아니야! 바뀐!”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자신은 반박하지 못한 채 성실히 수정 작업에 임해야 했다고요.

“당신은 감독의 중요성을 몰라! 독학하며 편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서로 티격대지만 사실 카리스마 감독인 엄마와 행동대장 아빠의 협업이 아니었다면 이번 수상은 힘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엄청난 발연기를 선보였던 준이가 올해는 꽤 선전해준 덕도 톡톡히 봤죠. 수상 소식을 듣던 날, 부부는 물론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경사 났다고 기뻐하던 모습은 아직도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상위 1% 남자가 될 거예요~”

“결혼 11년 차가 되더니 우리 석규 오빠 많이 변했어~”라며 타박하는 것과 달리 김은진 씨는 내 남편이야말로 대한민국 상위 1%의 남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세뇌시키곤 하죠. “너희는 가장이 될 몸이니 더 바르고 똑똑하게 자라야 한다. 무조건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걸 보고 배워!”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건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주엘이를 입양할 때만 해도 저는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준이와 차별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망설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당신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해나갈 거야”라며 용기를 북돋워주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이 탄생한 거죠(웃음).”

듣고 있던 김석규 씨가 부끄럽다는 듯 슬쩍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챙깁니다. 사실 이 가족의 행복한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그는 단연코 아내를 꼽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아이들이 이토록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만도 모두 아내의 덕이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첫째 준이가 참 고맙다고 그는 말합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주엘이는요~ 엄마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동생이에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고맙고 예쁘지 않나요? 다만 주엘이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 한 번은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사랑으로 키우면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 부부는 믿고 있어요.”

가족의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지금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닳아가는 완벽한 가족일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가족의 순간,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 수상 사진



대상

< 막내딸과 함께 리마인드 웨딩 >

송지현 : 2011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 선물로 받은 막내딸이 벌써 만 5세가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식 때 나는 어디 있었지?”

“너는 엄마 아빠 결혼식 때 없었는데...”

“아니야. 나 엄마 아빠 결혼식 기억나!”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는 막내딸과 우리 부부의 결혼 10주년을 기념

하여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산 천으로 면사포를 만들고, 저렴한 조화로 부케를 대신했어요. 사랑하는 딸들에게는 엄마 아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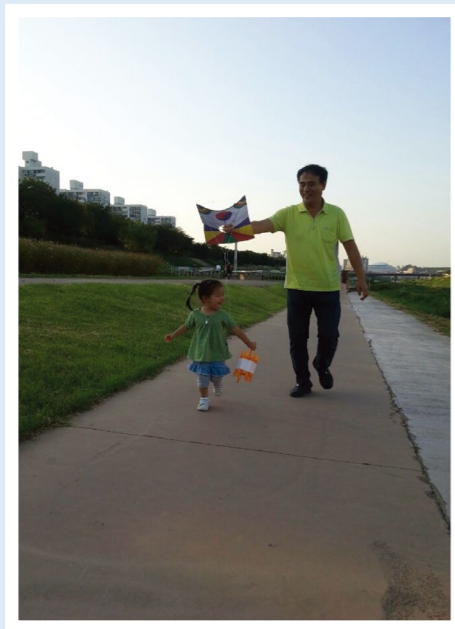
< 모두가 널 사랑해 >

윤학신: 동하를 맞이한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가족입니다.

동하를 지켜보다가 문득 동하가 저희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고운 아이가 와서 내 앞에서 웃고 있을까, 우리 방에서 자고 있을까 하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모를 이 어여쁜 아

이는 웃어도, 울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어디서 왔어도 상관없겠지요.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동하는 사랑과 칭찬을 듬뿍 받으며 날마다 빛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수상

< 아빠는 바람 >

김미옥: 예쁜 딸 시현이가 온 이후로 남편에게는 ‘딸바보 아빠’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가족 수만큼 행복도 늘어난 우리는, 행복한 시현이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현이랑 아빠는 연을 만듭니다. 20년 만의 방패연 만들기가 쉽지는 않네요. 예전에는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 만드는 사람처럼 서툰 솜씨입니다.

“시현 아빠 연 처음 만들어봐?” “예전엔 내가 얼마나 연을 잘 만들었는데... 잠깐 기다려봐!” “아빠, 빨리 만들어줘!”

드디어 방패연이 완성되었어요. 아빠는 시현이를 데리고 안양천으로 갑니다. 바람은 부는데 연이 날지를 않네요. 이를 어찌죠? 할 수 없이 늦깎이 아빠는 30분을 뛰어갑니다.

“시현아 뛰어! 아빠바람 간다!” 딸을 위해 바람이 되어주는 아빠랍니다.

입상

< 매화밭 3대 봉어빵 가족 >

박미향: 아장아장 걸기 시작한 꽃보다 더 예쁜 가원이네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를 알고

싶었던 아들 내외에게 할머니는 열린 마음으로 처음 입양을 제안하셨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해 몇 년을 망설였던 아빠는 가원을 처음 보던 날부터 지금까지, ‘딸바보 아빠’ 챔피언대회를 나가면 우승할 만큼 딸에 대한 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가원과 콧비가 되어 손짓 하나 눈길 하나에 척척~ 사랑과 신뢰의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요.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 찾아간 매화농원에서 할머니를 닮은 아빠와 그런 아빠를 닮은 가원이가 함께한 사진을 보니 영락없는 3대 봉어빵 가족이네요. 온 가족이 주는 사랑을 받고 쑥쑥 커가는 가원은 곧 돌을 맞이한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그리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사진부문

대상: 송지현 “막내딸과 함께 리마인드 웨딩” **우수상:** 김미옥 “아빠는 바람”, 박진숙 “너와 마주 보거나 같은 곳을 보며”, 윤학신 “모두가 널 사랑해”, 황보현 “형아랑 니랑” **입상:** 김석규 “푸르른 날에”, 박미향 “매화밭 3대 봉어빵 가족”, 송의영 “그때, 그리고 지금”, 원용득 “저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면 돼”, 정은주 “함께 걷기”

동영상 부문

대상: 김석규 “우리 가족 얼굴 탐구 교실” **우수상:** 유은석 “너에게 하고픈 말”, 최승희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형제” **입상:** 김소은 “사랑하는 귀한 내 딸! 너는 특별하단다”, 김하늘 “말해! 뭐해? 다솔이는 행복해”, 김혜영 “하경 돌기념”, 박화숙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수호 “은빈혜빈이네”, 장희용 “민준,현,훈이네 가족이야기”, 전성신 “별이네 가족이야기”

홀트심리상담센터,

건강한 가족에게서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단지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정신·사회적 안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은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홀트심리상담센터가 등불을 밝힙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

홀트의 핵심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게는 물론, 아동의 평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은 필수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 등의 사회문제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 건강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홀트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해 인천, 대구, 광주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복지관,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홀트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교육지원청, 가정위탁 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문위원 등 전문가 간 협력은 다각적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상담지원사업(바우처)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상담 수익금의 일부는 소외된 이웃의 가족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대구심리상담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대구심리상담센터는 2011년에 개소했습니다. 대구심리상담센터는 2015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품질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한국가족복지연구소 대구가족상담센터 김영호 소장을 비롯한 역량 있는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심리상담센터에서는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인가' '아이의 훈육' '아이와의 소통' 등의 주제로 양육토크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문의 053-627-8875)



▲ 언어치료실



▲ 교육실



인천심리상담센터

●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는 미혼양육모 일자리인 캣거루스토어와 홀트인천사무소가 있는 홀트인천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역량 있는 전문치료사들이 해당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 <부모가 달라졌어요> 등의 전문패널을 역임했던 김유정 자문위원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사례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032-424-5839)



▲ 대기실



▲ 놀이치료실



광주심리상담센터

● 2015년 개소한 광주 화정역 인근의 광주심리상담센터. 올해 1월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심리학회 자격제도위원장으로 있는 정승아 박사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며 언어재활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062-363-8878)



▲ 미술치료실



▲ 작은도서관

홀트심리상담센터에서는 어떠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미술·놀이 심리상담

언어로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이나 성인이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학습 심리상담

학업에 흥미가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에게 학업에 영향을 주는 적성, 성격 등을 파악하고 평가해 아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업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입니다.

부모·가족 교육

부모 역할 교육 및 가족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가족 내 부모 역할과 가족구성원 역할의 이해를 돕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족을 만듭니다.

언어발달 상담

언어발달 지체, 말더듬, 조음 장애 등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과 성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랑을 말하리오

“○○아, 엄마한테 갈까?” “응”

“○○아, 엄마한테 가지 말까?” “응”

첫 만남에서 질문을 할 때, 긍정과 부정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대답 대신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아이의 의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욕구나 상태를 표현하고 좀 더 크면서 발성과 몸짓을 사용하다 돌 무렵 첫 단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만 2세 7개월인 아동은 울음 대신 “아니” 또는 “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

이의 울음을 듣지 않기 위해 아이가 표현하기 전에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물을 주고, 장난감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장난감을 줍니다. 아이는 굳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표현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울음으로 표현한다면 손을 내밀며 ‘우유’ ‘주세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언어치료를 시작한 지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를 만나러 가려면 문을 똑똑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담시간에는 매시간 주요활동을 촬영해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목표반응과 아동의 반응을 설명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부분들을 상담합니다. ○○이는 또래보다 늦지만 울음 대신 행동을 동반한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며 향상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능력, 사회성, 심리발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또래와의 유대감도 쉽게 형성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단체 활동이 즐거워집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일방향이 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기회를 잃게 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이나 주양육자의 성향과 기질, 언어 사용량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아이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흥미 있는 행동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거나 아이에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오늘도 사랑을 말해주세요. 

글_ 윤지영 · 광주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사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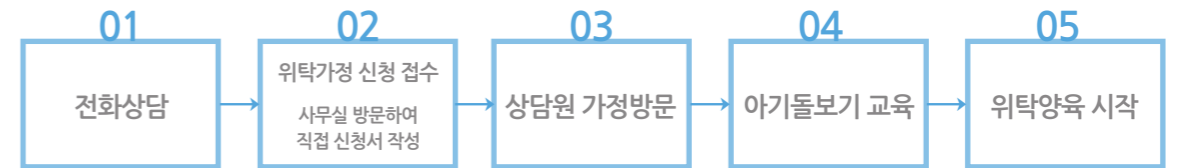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가정과 다름없이 자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에서 3세 미만인 이 어린이들은 지능, 언어, 신체, 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된 가정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위탁가정 선정요건

- 1) 신청인과 가족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 2) 신청인의 나이가 25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가 초등학교 이상
- 3) 홀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 살고 있으며, 양육 공간이 여유 있는 가정
- 4) 가족 모두 위탁양육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부업을 하지 말아야 하고 반려동물이 실내에 있지 않은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건강진단서 1부(간염 여부 기록 포함)



위탁가정 지원

- 1)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 2) 아동 양육 물품 지급
- 3) 아동 의료 지원

문의 및 신청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02) 331-7040~704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471)
/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8번출구



형민이가 혼자 걷는 그날까지

형민이(가명)는 작년 이맘때,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던 어느 날, 감기 증상 때문에 간 병원에서 근이영양증(근육병의 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지기 힘든 아픔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 내내 우는 아이. 언젠가 형민이가 울음을 그치고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노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귀여운 형민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홀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위탁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던 형민이는 지난 겨울,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간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어 몇 차례 재검을 받은 결과 근육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전학과, 재활의학과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뜻밖에도 근이영양증이라는 근육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4세 정도의 남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병은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점점 걷는 게 힘들어져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며, 나중에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진다고 합니다.

형민이를 위한 간절한 기도

형민이는 근이영양증과는 별개로 두상이 비대칭성인 단두증을 가지고 있어 머리 교정을 위한 헬멧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은 헬멧을 착용해야 해서 형민이와 위탁모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져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터라, 안심했던 위탁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마음이 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건강해 보였던 형민이가 근이영양증이라니! 혼자 잘 일어선다고 하지 않는 형민이를 그저 어리광부리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랬던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짜짜꿍, 찹찹'을 하며 맑게 웃는 아이를 보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또 한번 미안해집니다.

형민이는 매달 홀트의원에서 발달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발달이 늦어 4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위탁모뿐 아니라 위탁모의 가족들은 집에서도 형민이를 위해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 매번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탁모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한 두 다리도 맘껏 뛰노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형민이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글 _ 박혜정 · 아동양육팀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몽골에서 온 편지

앵호통갈락은 초등학교 3학년의 귀여운 소녀입니다. 홀트드림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이 발랄한 소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앵호통갈락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바양주르흐구 111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알콜중독자인 아빠는 오래 전 우리 가족을 떠났고, 지금은 엄마와 둘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거든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둡고 좁은 경비실 구석에서 온종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몽골홀트드림센터에 오게 됐죠.

학교가 오전반일 때는 오후에, 학교가 오후반일 때는 오전에 센터에 와요. 선생님께 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에 대해 물어보고, 숙제도 하죠. 전에는 학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겨도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좋아요. 함께 수학 문제도 풀고, 읽기 연습도 하면서 학교 성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특히 인물 소개 수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워요.

점심시간에는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어요. 집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센터에서 먹는 점심은 정말 꿀맛이죠. 경비실에서 일

하는 엄마와도 나눠 먹고 싶어서,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엄마를 위해 가져 가기도 해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에 한 알 씩 영양제도 먹는데요. 몽골은 겨울이 길어 햇빛을 자주 볼 수 없고, 야채를 자주 먹을 수 없어서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된대요. 아, 그리고 과일 간식도 먹어요! 집에서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화요일에는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그림을 배우고 만들기도 배워요. 어제는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예쁜 눈송이를 만들었어요! 종이 접기, 점토 만들기처럼 학교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또 목요일에는 영어 선생님이 오세요. 영어는 어렵지만 선생님은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어 노래를 가르쳐주시기도 해서 학교에서보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죠.



한 달에 한번은 위생교육도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래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손과 몸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누랑 칫솔, 치약도 주셔서 집에서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있는데, 깨끗이 잘 씻어서 올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싶어요.

안 참! 생일파티도 빼놓을 수 없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에 생일인 친구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고, 케이크랑 과자도 같이 먹는 시간인데요. 빨리 8월이 되어 저도 생일파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기다리는 금요일이 또 있어요. 바로 요리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죠! 샌드위치도 만들고, 주먹밥도 만들고, 꼬치도 만들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함께 가는 나들이도 정말 신나요. 지난번에는 울란바타르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청진벌터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징기스칸 동상이 있는데 어찌나 큰지 정말 신기했죠. 이외에도 미술관, 영화관, 놀이동산 등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들이만큼은 절대 빠지고 싶지 않답니다.



우리 엄마는 세 달에 한 번씩 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꼭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울란바타르 대학교 교수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신대요. 특히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저를 키우느라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친구들 엄마 아빠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대요. 엄마가 부모교육에 다녀오시고 나서 엄마와 사이가 더 좋아졌으니 신기하죠?

지난 1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얘기해보라고 하시면 저는 망설임 없이 새해발표회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과 한 달 동안 노래, 춤, 연극을 연습해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렸는데 무대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산타할아버지께 선물 받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요.

몽골홀트드림센터에 다니고 나서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학교 끝나고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림도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신나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제 소원이어서 앞으로 학교도, 센터도 더 열심히 다닐 거예요. 꼭 소원을 이룰게요!

글_한세희·해위사업팀

* 2015년 몽골홀트드림센터 연간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한 글입니다.



사랑스러운 하진이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듯 어느 때보다 햇살이 따사롭던 5월의 어느 날, 임신정 씨의 딸 하진의 행복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미혼모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며 작지만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하진이 엄마’입니다.



미혼한부모를 지원해주세요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돌잔치, 특별한 손님들

이날은 싱글맘 선정 씨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하진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주)롯데리아에서 함께하는 'Mom 행복한 생일파티'에 선정되어,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진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을 맞이해 다들 더욱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를 2년 만에 꺼내 입은 선정 씨는 한껏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진도 자신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지, 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앞 스피커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오자 몸을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춤을 추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스피커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은 댄서의 움직임에 돌잔치를 준비하던 이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번집니다.

무릇 돌잔치와 같은 행사에는 친인척들이 주로 참석하지만, 이번 돌잔치에는 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바로 선정 씨가 학창시절부터 봉사해왔던 곳의 장애아동들이네요. 초대받은 어린 손님들의 등장으로 돌잔치 분위기는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보이자 조금 긴장했던 선정 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제 아이인데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스물 셋 어린 나이, 아담한 체구에 오히려 얼굴이라, 사람들은 선정 씨와 하진을 모녀가 아닌 자매로 보곤 합니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는 건지, 하진이 물려오는 줄음에 칭얼대자 번쩍 안아줍니다. 소녀 같아 보이는 그녀지만 미혼한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파티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일 뿐이에요. 혼자서라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니 대단한 일이에요. 미혼모 스스로 당당해져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바뀔 수 있어요. 나부터 당당해져야죠.”

임신 5주 차,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히 아기를 낳아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낙태반대운동에 앞장서던 그녀에게 생명을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친부와 친부의 부모 모두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양육을 원치 않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임신 26주가 되자 선정 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해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친부에게 아동 양육에 대해 계속 설득해왔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정 씨는 시설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건강하게 하진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야 비로소 부모님께서도 그녀를 엄마로 인정해주었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두 배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그녀는 하진을 당당하게 양육하고자 학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을 맞은 하진 이와 함께 행복한 매일을 맞이할 그녀를 응원합니다!

글_우은영·홍보팀

광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다

HS애드 심의섭 수석 카피라이터



"안녕하세요, 선, 정혜영입니다 / 며칠 전, 싱글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이를 위해 열심히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어렵다 하셔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 지금, 싱글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1899-0923 홀트아동복지회"

매일 오전 9시, CBS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디오 방송 중간에 광고가 흘러나온다. 홀트는 이 광고로 '제24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수상의 일등공신, 카피를 제작한 사람은 누굴까? 짧은 멘트 하나로 소비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HS애드의 심의섭 수석 카피라이터를 만나봤다.



평범한 후원자에서 특별한 재능기부자로

유난히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LG계열 광고대행사 HS애드를 찾았다. 크리에이티브를 강조하는 광고회사답게 복도부터 독특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인터뷰를 위해 회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심의섭 카피라이터가 말을 꺼냈다.

"저 재능기부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기본 재능이 글쓰기니 1:1 코칭이나 강의로 글쓰기를 알려주는 거, 어때요?"

그녀의 눈이 반짝인다. 홀트의 일이라면 항상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녀는 사실 홀트의 오랜 후원자다.

"10년 전이었나요. 친구를 따라 장애인분들을 돕는 봉사를 갔어요. 밥을 챙겨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홀트를 처음 알았고, 작더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됐죠." 5년 이상 후원자로서만 있던 심의섭 카피라이터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다.

"혹시 저희 광고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홀트에서 걸려온 이 전화에 그 자리에서 "네, 할게요!"라고 대답했다고. 그녀의 시원한 웃음에 어울리는 시원한 대답이다. 아이사랑곳간, 캥거루스토어, 캄보디아소녀와 학대아동 돕기 캠페인까지... 홀트의 많은 광고 카피와 슬로건이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 남이 아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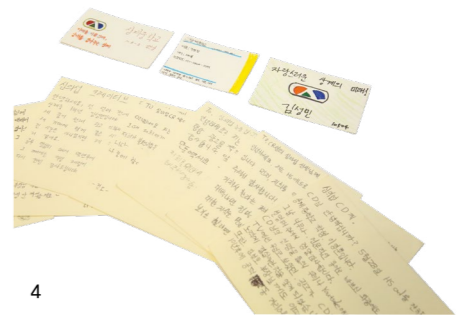
쏟아지는 광고 홍수 속,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광고를 만드는 일은 보통의 노력으로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은 건 병방에 없다고 너스레를 부리는 심의섭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각종 광고상을 타고, 대형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열정이 없으면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카피라이터를 책상에 앉아 글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카피라이터는 광고의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해요. 글을 쓰기 위해 사전조사는 물론 카피를 만들고 난 후에도 녹음실, 편집실, 촬영장까지 가서 현장점검을 다 해요. 주말에 틈을 내 홀트의 광고 만드는 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선 그녀에게 나눔이란 뭘까. "전 나눔이란 말을 싫어해요. 더불어 사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 그 사람이 나의 사촌동생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죠. 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능기부라고 하면 소위 전문직에 부자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시멘트 바르는 일도 재능이죠.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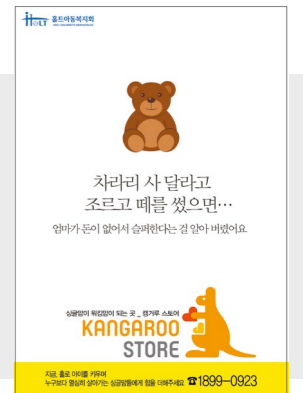
재능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 그녀는 얼마 전 낀 생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 머리카락을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 가발 만드는 데 기증했다고. 타인의 이쁨에 공감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진정한 '재능' 아닐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심의섭 카피라이터. 훗날 글쓰기 강의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져 그 '특별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바라본다. **홀트**

글 신유정 · 홍보팀



- 1 광고 회사답게 크리에이티브한 HS애드 인테리어
- 2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수상
- 3 광고 관련 강의
- 4 광고제작과정 참관 후 학생들이 보낸 감사편지

재능기부 홀트 광고



소비자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우리는 아이사랑공간입니다!”

‘아이사랑공간’은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For your happiness
Juny.M



예약금 5%를 고객과 함께 후원하는 ‘주니엠메이크업’

주니엠 메이크업은 강남에 위치한 헤어 메이크업 전문업체입니다. 주니엠은 예약금의 5%를 고객들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트의 후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첫돌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3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한 시기는 회사를 시작한 시점과 비슷해요. 한 번도 후원하는 돈이 저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가격대가 있는 서비스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고객들과 함께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김유진 대표. 군대에 있을 때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봉사하며 홀트를 알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후원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업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홀트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라면사리 하나 추가! 아이사랑도 하나 추가! ‘오빠부대찌개’

맛있는 식당에서도 나눔의 마음은 빛을 발합니다. 식당 안, 테이블 위에 가득 쌓인 라면사리 위로 마음을 흔드는 문구 하나가 보였습니다.

‘라면사리 한 개를 주문하실 때마다 어려운 아동들에게 후원이 됩니다.’

오빠부대찌개는 올해로 4년째 사랑을 이어온, 아이사랑공간의 가장 오래된 후원자입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수익을 나누길 바랐으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라면사리’로 손님들과 함께 나눔을 시작한 것이지요.

“때론 이런 나눔을 의심하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의 나눔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은 일부러 라면사리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생겼답니다(웃음).”

손님들의 라면사리 후원이 부족할 때는 거침없이 본인의 사비로 후원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 수익 일부를 후원하는 ‘박승철위그스튜디오(천안점)’

박승철 위그스튜디오
PSC WIG STUDIO



자신만의 색깔로 나눔을 실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 출신 가발 디자이너들이 가발을 제작하는 박승철위그스튜디오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는 사장님. 부인을 통해 홀트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승철위그스튜디오는 ‘아이사랑공간’을 후원하는 동시에 또 다른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항암가발 수익금의 3%를 추가로 홀트에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항암치료를 가발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박승철위그스튜디오와 함께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음에 뿌듯해합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는 공간처럼, 풍성한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착한 마음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글_김유진 채성현 · 나눔협력팀



아이사랑공간 신청방법

아이사랑공간이란?

개인후원자 이외에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학교 및 단체 이름으로 일정금액을 후원하여, 국내 및 해외의 빈곤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이사랑공간’에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채워 주세요!



배우 이민호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

우리 함께 약속해요 'PROMIZ(프로미즈)'



'함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힘들어도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하는 '우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로미즈'는 배우 이민호가 이처럼 나눔의 뜻을 더 많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품 판매 수익금 100%를 기부하는 착한 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한 프로미즈 노트와 예코백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홀트와 프로미즈는 2014년 겨울, 프로미즈의 제품 후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소중한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트와 함께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5년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한 프로미즈의 <1 LIKE=1 NOTE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미즈 SNS에서 진행한 이것은 내가 누른 하나의 1 LIKE가 1권의 노트가 되어 캄보디아와 탄자니아의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1,000권의 프로미즈 노트와 더불어 아이들이 가방으로 쓸 수 있는 예코백을 홀트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이민호 씨의 팬들이 추가로 학용품을 제작해서 홀트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 기분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2016년은 프로미즈와 홀트의 인연에 특별한 해입니다. 프로미즈는 2016년을 맞아 팬들의 참여를 통한 제품 판매 수익금을 홀트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눔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함께 지킬게라는 약속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팬들과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지난 4월에는 프로미즈의 직원들이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봉사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팬들에게 나눔을 이야기하기 전에 프로미즈가 먼저 봉사활동으로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가던 저희에게, 그곳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로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과 교감했던 그날의 시간은,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동반자란 어떤 활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미래의 희망임을 알기에, 프로미즈는 오늘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 홀트와 즐거운 나눔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며 소박한 기적을 꿈꾸어봅니다. #Holt

글_ 원보형 · 프로미즈



프로미즈, 2016 착한브랜드 대상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하고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착한브랜드 대상'에서 프로미즈가 착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우와 팬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홀트와의 좋은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

〈두시탈출 컬투쇼〉 10주년 기념 콘서트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가 방송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기부형 공연행사로 마련한 이번 특집 쇼에 참여한 방청객들 또한 온정을 담은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고 뜻 깊었던 시간이었다.



1. 콘서트장 전경
2, 3, 4. 방청객들이 홀트 후원자로 등록하고 있는 모습

벌써 10년?!

지난 4월 15일 금요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인기 개그 듀오 컬투(멤버: 정찬우, 김태균)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가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 것.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자랑하는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 청취자를 초대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소통해왔기 때문일까? 이 프로그램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애청자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의 골수팬이 아니어도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라디오 채널을 SBS 파워FM에 맞추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그 증거.

그래서일까. 저녁이 되자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한 행렬이 줄줄이 이어졌다. 방청객의 연령대도 다양해서 교복을 입고 올림픽공원을 찾은 청소년은 물론, 퇴근 후 부지런히 이곳으로 달려온 직장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간


이번 기념 콘서트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활동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고자, 2015년 5월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동참해오고 있다.

이번 10주년 기념 콘서트는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현상이기도 했다. 사업의 취지를 접한 방청객들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는데, 행사장 한편에서는 홀트 후원자로 등록하는 흥분한 풍경도 이어졌다.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호소하며

오후 8시, 비로소 기념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콘서트에는 오렌지카라멜, GOT7, 다이아믹듀오, 서문탁, 레드벨벳, 씨엔블루, 태민 등이 출연해 방청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프로그램과 동고동락해온 청취자들의 특별한 사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사전 녹음·녹화되어 홀트아동복지회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2016년 5월 1일에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됐다. 많은 이가 주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 컬투 역시 프로그램 사이사이 "컬투쇼 콘서트 기부금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전액 아동폭력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는 안내를 덧붙였다.

즐거운 시간 속에 세상을 향한 따스한 시선까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두시탈출 컬투쇼〉 10주년 기념 콘서트.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이가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을 보듬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홀트의 아동학대예방사업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심리검사 및 치료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학대 피해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
- 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 :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보살핌과 다양한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위로와 치유의 공간

아나바다 알뜰장터, '엔젤 패밀리'의 날개를 달다!

아나바다 알뜰장터가 또 일을 쳤습니다. 10회를 맞아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겁 없이 덤벼든 것이 덜컥 대박이 난 것입니다. 수많은 엔젤들의 날갯짓이 거센 훈풍을 일으킨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리엔테이션 나눔교육
2, 3, 4. 알뜰장터 풍경

시작은 미약했으나...

매년 홀트대구사무소에서는 크고 작은 후원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그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구맘 카페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알뜰장터는 많은 대구시민들이 찾는 큰 행사입니다. 이번에 10회를 맞이한 알뜰장터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엔젤존 ; 엔젤 패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알뜰장터와는 달리

사전에 나눔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당일 판매 금액을 심장수술을 받아야하는 의료아동 '소망이'의 치료비로 후원하는 것이 엔젤 패밀리의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어찌지' '부담스러워하면 어찌지'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족, 두 가족씩 신청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홍초등학교(학교장

박수경)에서는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부모 초대 행사에 저희를 초대해서 엔젤 패밀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무려 23가족이 신청! 설렘으로, 기쁨으로 나눔에 대한 기대로 모였던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반짝이던 참가 가족들의 눈빛을 보며 천사들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젤의 작전이 드디어 시작되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엔젤 패밀리들의 작전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집에서 팔 만한 물건을 모으고, 직접 쿠키를 굽기도 하고, 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쓸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 선물 받은 생필품을 챙기고, 더 가지고 놀고 싶지만 나눔을 위해 기꺼이 아이들 스스로 장난감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물품 모으기 작전은 마무리 되었고요.

판매를 위한 시선 끌기는 어땠냐고요? 신홍초등학교팀은 현수막 만들기 작전, 문성초등학교팀은 눈에 띄는 단체조끼 제작 작전, 숨결이네는 하얀 티셔츠에 직접 시트지를 붙이고 "우리가 숨결이네다!"라고 표시를 하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진우네, 소민이네, 민지네 등 많은 가족들은 크고 작은 데코레이션 용품과 직접 만든 스탠스점 홍보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작전으로 준비했으니 천사들 모두 행사 당일이 얼마나 기대되었을까요?

4월 30일,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당을 잡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8시부터 기다렸다는 한 어머니. 그녀의 환한 웃음으로 엔젤의 본격적인 작전은 개시되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주고 싶었던 엔젤 패밀리

"엔젤 패밀리 여러분, 덥고 힘드셔도 웃는 모습으로 함께해주세요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직원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판매수익을 전액 후원하시겠다는 엔젤 패밀리의 표정이 일반 판매자의 표정보다 더욱 즐겁고 기뻐 보였거든요. 엔젤 패밀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판매하며 더욱 친해지는 모습. 따가운 봄 햇살 때문에 피부가 그을리는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꺼야 하는 것도, 소리를 질러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가족들은 심장수술을 앞둔 '소망이'를 돕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엔젤 패밀리는 전체 참가자의 10% 정도였지만, 일반 참가자들도 그들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부해주었으며, 정기후원을 신청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23가족을 통해 '소망이'에게 큰 힘이 될 만한 금액이 모을 수 있었으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은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HWT

글_ 정가영 · 대구사무소

인터뷰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처음 엔젤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행사의 취지와 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교육을 해주시며 적극 응원해주셨는데, 어찌나 힘이 되던지요. 행사 당일, 엔젤 패밀리 어머니들과의 서먹함과 낯설음이 있었지만 금방 아줌마 특유의 당당함과 넉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어찌나 예쁘게 설명하던지 후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엔젤 패밀리 엄마들은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하나 둘 모여 누군가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줄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망아, 건강해!

- 엔젤패밀리 승원이 엄마

엔젤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최주영 가족, 황성우 가족, 김민서 가족, 강민지 가족, 이소민 가족, 이서희 가족, 이예지 가족, 김승태 가족, 이준혁 가족, 최예지 가족, 하운서 가족, 전재우 가족, 홍석현 가족, 조승원 가족, 이태영 가족, 방준빈 가족, 박진우 가족, 성승결 가족, 정재현 가족, 김은성 가족, 문성초학부모회(김서화 · 박숙영 어머니 가족 외), 차문주 어머니 가족

12개국 22명의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행복나눔 봉사단은 12개국 22명의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모국은 다르지만 ‘행복을 나누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들을 소개합니다.

봉사활동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한 번에

행복나눔봉사단은 창단 이후 지역사회에 내에서 정서 지원, 노력 봉사, 환경 봉사와 같은 활동을 비롯해 통·번역 및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월례회의를 통해 봉사단의 유지와 방향성에 대해 토의하고, 셋째 주 금요일에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양지노인마을에서 어르신들 정서지원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1. 2. 김장봉사활동
3. 봉사기초교육
4. 애민원 봉사
5. 센터바자회

우리의 노력이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2016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애민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해 4월 22일 봉사단원 10명과 센터 직원 3명이 애민원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시설장님,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시설에서 원하는 봉사과 봉사단원이 제공할 수 있는 봉사내용에 대해 조율하며 인원 배정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학교에 갈 시간이라 4명은 식당 정리를 돕고 또 다른 4명은 아이들이 전부 모이는 강당을, 3명은 아이들의 방을 정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영아 돌봄을 맡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봉사를 해온 봉사단원들은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예상시간보다도 빨리 끝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도 나중에 느낄 뿌듯함과 보람을 생각하면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봉사를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행복나눔 봉사단은 매년 2회 이상 봉사자 기초소양교육을 받으며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그 밖에도 다문화 이해강사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지역 내 새봄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5월에는 교동초등학교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각 나라 전통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놀이, 강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령대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수업을 진행하는 반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0년여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봉사단을 이끌어온 결혼이민자들의 노력이 우리와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도 밝은 웃음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글 _ 지현이 ·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터뷰

어떻게 봉사단을 시작했고, 이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시리제(중국) 저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 사회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오고 봉사단에 가입했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 최국화(중국) 지인을 통해 이 모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당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활동을 하는 동안 안쓰러운 마음과 뿌듯함이 함께 느껴졌어요. 남을 돕는 즐거움이 저에게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혜자(중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봉사단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여러봉사 단원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 참 즐거웠고 오히려 봉사를 통해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 웬티엠(베트남) 저는 살림을 하니까 돈이 여유롭지 않아도 시간은 여유로운 편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나 아름다운 춘천시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고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저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인지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

마마프와 함께하는 캥거루스토어 프리마켓



5월 17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마마프(마포엄마프리마켓)와 캥거루스토어가 프리마켓을 실시했다. 마마프는 행사를 마친 후, 미혼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롯데리아 'Mom 행복한 생일파티' 후원 협약



'Mom 행복한 생일파티' 후원 사회공헌 협약식을 롯데리아와 3월 25일에 진행했다. 롯데리아는 미혼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돌잔치 비용 전액과 생일파티 선물도 후원했다.

SK네트웍스 학대 피해아동 돕기 후원금 기증



SK네트웍스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학대받은 아동들의 심터인 홀트미추홀 아동들을 위해 사용된다.

● 본부 ●

제11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

5월 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홀트한사랑회 회장 신용운(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위탁모 고기숙(국무총리상) 등이 수상했다.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



보건복지부 후원, 롯데호텔이 협찬한 '제10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4월 29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입양가족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사진 수상작은 롯데호텔 갤러리에서 5월 8일까지 전시됐다.

캥거루스토어 인천점 개점식



IBK기업은행, 철은인터내셔널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3월 30일 캥거루스토어 인천점 개점식을 가졌다. 인천점은 수원점과 서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으로 미혼한부모의 경제 자립을 위한 공익형 매장이다.

홀트가족나눔교육 강사 위촉식



3월 10일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가족나눔교육 강사 위촉식에 참여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인성교육인 가족나눔교육은 현재 10명의 전문강사와 6명의 일반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지방사무소 ●

부산사무소, 한마음 대잔치

5월 7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입양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입양가족들이 모여 공연 관람,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진행했으며 홀트 입양가족 김다진 씨가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사무소,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음악회

5월 14일, 홀트패밀리 박오한 씨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 이월드에서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오후에는 기념 음악회가 열려 많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사무소, 위탁모 힐링 프로그램 진행



위탁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위탁모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위탁모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인천사무소, 한사랑 가족축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내빈 및 입양가족들을 초대해 5월 11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입양의날 기념식 및 한사랑 가족축제'가 열렸다. 입양가족들의 공연, 입양유공자 표창, 마술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기사무소, 일일차집



4월 11일 수원시에 위치한 호텔리츠콘벤션웨딩에서 요보호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총 500여 만 원이 후원금으로 모금되었으며, 이는 입양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사무소, 제11회 입양의 날 기념식 열려

5월 11일, 창원 미래웨딩홀 4층 그랜드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관공서, 유관기관, 입양가정, 경남도민을 초청해 입양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입양가정 간 소통의 기회를 갖는 행사 및 공연을 진행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오디션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의 정기 오디션이 3월 16일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열정적으로 선보였고,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고양시장컵 '제22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고양시장컵 제22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 7개 팀이 참가해 4일간 치열한 접전을 치른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양시 홀트는 3위를 차지했다.

● 홀트학교 ●

스승의 날 스승 존경, 제자 사랑 행사



5월 13일, 제3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을 서로 확인하며 인사와 프리허그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홀트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덕담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복지관, 제11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실시



장애인의 문학적 자질을 발굴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11회 전국장애인문학제를 실시, 4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문학 363편과 산문학 116편 중 2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고, 대상에는 이병하(사직장애급) 씨의 <봄비>가 당선됐다.

대구복지관, 홀트어르신 효도잔치 성황리 개최

5월 13일 대구복지관 지하 강당에서 지역 내 독거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트어르신 효도잔치가 개최됐다. 카네이션 달기 및 합창, 큰절 올리기 행사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운봉복지관, 아미의료봉사단 900차 무료진료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부산대학교 아미의료봉사단은 지역주민 90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 내과 등 4개과의 진료와 각종검사를 실시했다. 아미봉사단은 1993년부터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날 진료에는 초창기부터 참여한 김윤진 교수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동참했다.

하남복지관, '인성의 조건' 인성 캠페인 진행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의 조건' 교육 및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인권 교육, 버추 프로젝트, 창의인성 놀이교육 등 5회기에 걸쳐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4월 16일 열린 하남봄문화마당 축제에서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인성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분리복지관, 우리들은자란데이 (어린이날 기념행사) 실시

5월 4일 복지관 인근 분리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역의 아동 및 보호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재능나눔을 통해 리본 공예, 전래놀이, 먹거리 나눔 등이 이루어졌으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행사장이 가득 찼다.

수영복지관, 사랑의 도시락 나눔사업



3월 3일 결식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과 다음 '같이가자' 모금을 통해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진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기업 봉사를 통해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粥, 아카펠라 그룹 콘서트



4월 11일, 미혼모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 'M♡VOICE'의 첫 콘서트가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7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반 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며, 음악을 통해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고운돌, 엄마들과 함께한 '소소한 바자회'



4월 27일 고운돌 앞마당에서 미혼모 자립기금을 위한 '소소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류, 육아용품, 음식 등을 준비해 판매,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아름뜰, '육아나들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3월 31일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한 공모에서 '미혼엄마들의 활력충전, 육아나들이'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봄소풍, 뮤지컬 감상 등 바쁜 일상과 육아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대구클로버, 바리스타 교육 실시



4월 19일 '일곱명이 내딛는 첫걸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리스타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졌다.

대전클로버, 봄맞이 가족 나들이



4월 1일 대전클로버 가족들이 함께 대전 오월드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는 대전도시공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들이를 통해 양육의 보람을 느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자녀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아빠의 사랑을 싣고'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아빠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버지 모임을 비롯해 요리, 미술 활동 및 체육대회를 진행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남건강가정지원센터,

3H(Hanam, Healthy, Happy)가족 프로젝트!



하남시 공공·교육·유관기관·사업체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H가족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4월 19일은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연계해 부모교육을, 4월 22일에는 천현초등학교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교육을 진행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가족 행복 나들이 진행



4월 30일, 양평 딸기 따기 체험 농원에서 가족이 함께 딸기 따기 체험, 딸기피자 만들기, 송어 잡기 등을 통해 80명의 다문화 가족이 가족 간의 화합과 친밀감 향상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多)누리 장터'



5월 7일 토요일 KBS 야외공원에서 특별한 장터를 열었다. 천연세제, 아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팔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낸 것. 또한 레인보우칸타빌라 합창단과 AVENUE 공연 및 필리핀 댄스 공연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장터가 되었다.

● 심리상담센터 ●

대구심리상담센터, 양육토크콘서트 열어



4월 25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인가'라는 주제로 양육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콘서트를 통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전주영아원 ●

딸기밭 나들이



5월 3일 아동들이 전북마음모아 자원봉사단과 함께 전북 완주군 소재 딸기밭 나들이를 했다. 딸기를 직접 따서 모양을 관찰하고, 맛도 보고, 딸기 잼을 만들고 향기도 맡으면서 아이들은 오감 만족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

중동어린이집, 동물원 견학



5월 11일 만 4~5세 유아들이 서울랜드 동물원에 갔다. 코끼리 열차를 타고, 원숭이, 낙타, 사자, 양을 직접 보며 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돌고래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포어린이집, '마포동이 모여라' 축제 참가



5월 4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월드컵공원 난지잔디광장으로 '마포동이 모여라' 어린이 대축제를 다녀왔다. 마포구 내 다양한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등 직업 체험도 하고 과학놀이, 미술놀이 등의 관람도 즐기며 어린이날의 기쁨과 설렘을 느꼈다.

홀트어린이집, 구강 교육 받아



4월 5일 팔달구보건소에서 만4~5세 원아들이 구강교육을 받았다.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을 배우고, 불소도포도 했다.

은방울어린이집, 한국민속촌 소풍



4월 28일 5~7세 아동들이 용인 한국민속촌 소풍을 다녀왔다. 민속마을과 사극마당을 관람하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후원회 ●

광주후원회, 사과농원 사과수거 자원봉사



10명의 광주후원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6~17일, 이팔청춘 사과농원(전남 곡성군)에서 사과수거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를 위해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강원후원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전통 장 담그기



3월 11일, 동면장학리에서 춘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6명과 함께 '전통 막장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전역 강원후원회에서 후원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전통음식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전북후원회, 사랑나눔 일일카페



4월 5일, 홀트전북후원회와 전북사무소는 의료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향기 일일카페'를 전주 신일교회에서 진행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마무리된 이 행사의 수익금은 의료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가워
탄자니아**

캄보디아, 몽골에 이어
탄자니아도 홀트가 함께합니다.

키감보니 지역 빈곤 아동을 위한
급식과 방과 후 수업 후원

후원문의 1899-0923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회복을 꿈꿉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은 CCM 가수 박요한 전도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CCM 콘서트 형식의 나눔예배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 속 사역에 동참하기도 약속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 문의 : 나눔협력팀 02-331-7144

CCM 가수 박요한 프로필

- 기대의 워킹 팀으로 데뷔
- 대표곡 : 기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 의 기도
- 방송 : CBS TV 성서학당 출연, CTS 라디오 번개탄 - 천국투게더 진행
- 저서 : 요한의 고백



홀트아동복지회의 홍보메신저가 되어주세요
휴대폰 통화연결음 신청

알렉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의 따뜻한 음성으로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설정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MASTER OF SURPRISE



MASERATI QUATTROPORTE.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에 의해 그 빛을 잃어가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집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가치와 철학으로 매 순간을 아름답게 질주하는 콰트로포르테, 경이로움의 결정체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빛냅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Quattroporte GTS: V6엔진 배기량 3,799cc, 자동 8단, 공차중량 2,040kg, 5등급, 복합연비: 6.2km/ℓ (도심: 5.1km/ℓ, 고속도로: 8.3km/ℓ), 복합CO₂: 283g/km
Quattroporte S Q4: V6엔진, 배기량 2,979cc, 자동 8단, 공차중량 2,090kg, 5등급, 복합연비: 7.6km/ℓ (도심: 6.3km/ℓ, 고속도로: 10.2km/ℓ), 복합CO₂: 238g/km
Quattroporte Diesel: V6엔진, 배기량 2,987cc, 자동 8단, 공차중량 1,945kg, 4등급, 복합연비: 11.5km/ℓ (도심: 10.2km/ℓ, 고속도로: 13.6km/ℓ), 복합CO₂: 175g/km
*효율적 사용방법: 경제속도 정속주행, 급발진, 급가속 금지 • 위 연비는 표준무드에 의한 표준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www.maserati.co.kr



MASERATI

Quattroporte

마세라티 공식 전시장

강남 전시장 02)3433-8888 서초 전시장 02)3487-1010 분당 전시장 031)717-0886 일산 전시장 031)904-2200
대전 전시장 042)633-8881 광주 전시장 062)376-8181 대구 전시장 053)751-2010 부산 전시장 051)635-8999

마세라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